

# 中國 古代 園林에 관한 연구

## -秦, 西漢, 隋, 唐代를 중심으로-

박경자\* ·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 A study on Chinese Ancient Garden

### -focus on Qin, Han, Sui, Tang Dynasties-

Park, Kyung-Ja\* · Yang, Byoung-E\*\*

\*Ph.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t may be said that ancient wild Chinese garden had been founded during Qin(秦) dynasty and completed through Han, Sui and Tang dynasties. At first used as hunting areas for kings, the ancient resort forests began to take forms of garden. They dug a pond in the garden and made a simulated mountains with the soil that came from the excavations for the pond and such pavilions as Gyong, Ru, Gak etc. were built around the pond. The ponds were different in size from those in Korea, being of the lake-like size.

They made three islands in the pond, which were the islands of Taoist hermits with supernatural powers, called Bong-lae, Young-ju and Bang-jang respectively. The traditions of making those islands began in the Qin era and were completed in the Han era, being descended to posterity as a traditional garden structure of 'three islands in one pond(一池三山)' garden style. Such style was brought to Korea and first appeared as Kung-Nam-Ji in Back-jae kingdom and then brought to Japan, becoming the tradition of constructing ponds from early Heian era. Those lake-like huge Chinese ponds constituted the core of ancient garden where various feasts took place. Such ponds were also placed at the center of the gardens and played the roles of feasting garden ponds.

Through the above-mentioned studies of the ancient Chinese garden, the origin of them and the influence of the ancient Chinese ponded garden upon those of Kore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Key Words : three islands in one pond*

## 1. 서론

### 1. 연구 목적

중국 고대 원림은 통치계급이 거주하고 유람하는 이중의 목적으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림의 주요한 특징은 지역에 따른 다양한 조원방법과 땅을 파서 인공의 산을 만들고, 건물과 花木을 배치하며, 아울러 環境을 이용하여 借景을 조성하고, 자연풍취가 풍부한 원림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연풍취는 설계시에 대자연의 풍경을 소재로 概括하고 다듬어 院에서 각종의 이상적인 意境을 창조한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모방이 아니고, 자연예술의 재현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장기간에 걸친 실천을 통하여, 점차 중국의 독특한 자연 풍경식 원림을 형성하게 되었다(유돈정, 1995:46).

중국의 고대 원림은 수립을 위한 장소의 조성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빈번한 수렵활동은 농토의 곡식을 훼손시키고 백성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으므로, 초목이 무성하고 동물이 많이 번식하는 지역에 일정한 구역을 선정하여 동물을 기르고, 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기도 하였으며 땅을 다져 흙으로 臺를 쌓았는데 이것이 최초의 고대 원림이다(주유권, 1993:20-21). 이렇게 하여 연못을 파고 흙을 쌓아 臺를 조성하는 전통 원림의 수법의 시작으로부터 후에 이 臺 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秦의 통일 국가시대에 이르면 제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방대한 원림이 조성되며 漢시대에는 秦의 전통을 이어받아 전통 원림 형식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隋, 唐시대에 와서는 중국 원림의 전성기에 이르게 된다(강태호, 1997:88-93).

이러한 중국 원림의 형성기인 秦, 漢시대에서부터 전성기인 隋, 唐시대에 이르는 고대 원림을 연구함으로써 중국 전통 고대 원림 연구의 기초를 세워보려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중국이 중심이 된 동일한 동북아 문화권에 속하고 고대에 올라갈수록 이 중심지에서 주변의 후진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이었다(김원룡, 안희준, 1993:5)는 점에서 중국의 고대 원림을 연구함으로써 위와 같이 중국과 동일 문화권인 당시의 한

국 고대 조경을 조명해 볼 수 있다는 데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秦, 漢, 隋, 唐시대의 고대 원림에 관한 관련 문헌 조사와 秦, 漢, 隋, 唐의 도읍이었던 西安의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 서안의 원림 조사는 필자가 1997년 2차례의 방문을 통하여 그곳의 유적지를 관련 전문가의 동행으로 직접 답사하고 현지에서 여러 학자들의 탄담을 통하여 관련 문헌과 연구물들을 수집했다.

관련 문헌은 중국 고대 원림에 관한 역사서의 기록과 각종 문헌 및 이에 대해 현재 발표된 중국과 한국의 연구물로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원림을 조사 연구했다.

西安의 원림 유적지는 현재 대부분 발굴이 되지 않아서 그 遺溝의 흔적만으로 원래의 상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遺溝의 흔적을 찾아내서 원래의 모습을 추정하고 발굴된 보고서와 역사지리서의 그 복원된 모습을 기초로 하여 秦, 漢, 隋, 唐시대의 고대 원림을 연구했다.

### 3. 연구사

중국의 고대 원림에 관한 연구는 姜泰昊(1995, 1997)는 「中國 古典園林의 發展過程」에서 중국 전시대에 걸친 私家園林과 皇家園林을 形成期인 秦, 漢과 轉遷期인 魏晉南北朝시대와 全盛期인 隋, 唐시대와 成熟期인 宋시대와 完成期인 元, 明, 淸시대로 구분하여 연구기술하고 있으며 임상섭(1998)은 「中國 은일(隱逸)文化와 士大夫園林의 關係」에서 先秦時代에서 唐朝까지의 隱逸文化와 관계된 士大夫의 園林을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는 淸代의 원림을 다룬 연구가 있을 뿐 중국 고대 원림을 다룬 연구는 국내에는 없는 상태이다.

중국에서의 중국 고대 원림에 대한 연구는 劉敦楨(1995)은 「中國古代建築史」의 園林부분에서 각 시대에 따른 園林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周云庵(1997)은 「陝西 園林史」에서 현재의 長安을 중심

으로 周, 秦, 漢, 魏晉, 隋, 唐 특히 唐代는 상세하게 그리고 宋元明清代는 간략하게 官城과 苑 또 園林을 考證을 들어 설명하고 있고 周維權(1993)은 「中國古典園林史」에서 각 시대의 園林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苑池에 세 개의 섬을 만드는 ‘一池三山’의 전통과 변천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徐松(1996)은 「唐兩京城坊考」에서 唐의 수도인 西安과 洛陽의 城制를 밝히고 있고 史念海(1996)는 「西安歷史地圖集」에서 歷史地理學의 입장에서 지금 長安의 각 시대의 城制 뿐만 아니라 園林의 분포에 대해서 圖解하고 있다. 또한 中國歷史地理論叢에 최근 발표된 中國古代園林에 대한 論文으로는 億里(1996)는 「秦苑園考」에서 苑園의 시작과 종류, 분포, 기능을 밝히고 王杜教(1995)는 「西漢上林苑的範圍及相關問題」에서 上林苑의 範圍와 機能을 밝히고 耿占軍(耿占軍, 1994)은 「唐都長安池潭考述」에서 長安 池潭을 많은 詩文을 引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李浩(1997)는 「唐代園林別業雜考」에서 唐代 別業을 또한 많은 詩文을 引用하여 밝히고 있다.

## II. 秦의 苑

秦의 苑園는 북쪽 동산을 말하며 『詩經·秦風·車鄰』(駟驥)의 하면 ‘공의 아름다운 사람이여, 공을 쫓아 사냥하도다. ... 북쪽 동산에서 노니 사냥하는 말이 이미 잘 길들여 졌도다.’ 고 서술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동산은 秦公이 유렵(游獵)하던 장소이다.<sup>9)</sup>

射獵은 순수한 향락과 몸 건강과 무예 연마의 수단이다. ‘강한 쇠뇌는 높이 나는 새를 맞히고 달리는 개는 교활한 토끼를 쫓으니 이것이 그 즐거움이 되었다.’<sup>10)</sup> 이러한 사렵에서 원유가 생겨났다. 원유는 제왕이 금수를 길러서 사렵과 유락을 제공받는 장소이다(역리, 1996:101). 고대의 원유에서는 야생의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을 많이 길렀다. 『史記·殷本紀』에 商의 주왕(紂王)이 沙丘의 원과 대를 더욱 넓혀 들짐승과 날짐승을 많이 취해 그 안에 두었다는 기록<sup>11)</sup>이 있다.

이러한 원유로는 具園<sup>12)</sup>가 있고 『左傳』 僖公 13년 鄭의 皇武子가 ‘정에 原圃’가 있는 것은 진에 구유가 있는 것과 같다’<sup>13)</sup> 라고 하였고 또 五苑은 『韓非子·外儲說右下』에, ‘진의 백성들이 크게 기아에 시달렸으므로 제후가 청해 말하기를 ‘오원의 풀과 나물과 과일,

대추, 밤 등은 족히 백성을 살릴 수 있으니 청컨대 그것을 내어 주소서’<sup>14)</sup> 라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五苑은 원의 이름은 아닌 것 같고 다섯 원유의 총칭으로 보인다(역리, 1996:101).

獸園<sup>15)</sup>은 늦게 보아도 秦 昭王 때 이미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원은 온갖 짐승을 모아 기르는 곳으로 오늘날 동물원과 같다. 『漢宮殿疏』와 『類編長安志』의 기록에 의하면 진의 수원은 虎園(호랑이 우리), 狼園(이리 우리)을 포함한다(역리, 1996:102).

秦始皇이 전국 통일 후 큰 원유를 만들고자 했는데 등으로는 函谷關에 이르러 서로는 雍. 陳倉에 이른다. 끝내는 우전(优旃)이 힘써 간하여 그만 두었다.<sup>16)</sup> 고 한다.

兔園은 진 2세 원년 11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토원은 만든 시간이 가장 정확한 秦代 원유이다(역리, 1996.102).

만든 연대를 고찰할 수 없는 것으로는 上林, 혼제와 宜春의 三苑이 있다. 상림원은 『史記·秦始皇本紀』에 始皇 35년 ‘이에 朝宮을 위수 남쪽 상림원 안에 지었다.’<sup>12)</sup> 라 하였고 『史記·李斯列傳』에는 2세가 ‘이에 상림에 들어가 재계하였다.’<sup>13)</sup> 라 하였고 또 ‘漢 상림원은 곧 진의 옛 원이다.’<sup>14)</sup> 라는 말은 진에 상림원의 자취가 있다는 말이다.

『秦會要訂補』에 의하면 ‘진 때에 혼제원이 있었다.’<sup>15)</sup> 라고 한다.

의춘원은 『三輔黃圖』권3에 ‘의춘궁은 본래 진의 이궁이니 長安城 동남쪽 杜縣의 동쪽에 있다.’<sup>16)</sup> 라 하였고 『括地志』에도 ‘진의 의춘궁은 雍州 萬年縣 서남쪽 30리에 있다. 의춘궁은 궁의 동쪽에 두었고 杜의 남쪽에 있다’<sup>17)</sup> 고 하였다. 의춘원의 곁에는 개수가 있고 풍경이 수려했다. 진나라 때 이곳에는 이미 궁실, 명승이 있었고 의춘원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역리, 1996:102) 『史記·秦始皇本紀』 기록에 趙高가 胡亥를 꾀박해 죽이고서, 2세를 두의 남쪽 의춘원 안에 백성의 예로 장사지냈다고 하였다.<sup>18)</sup> 2세의 묘는 지금의 曲江池 남쪽의 기슭에 있다(역리, 1996:103).

秦苑圃로는 禁苑과 公馬牛苑이 있다. 금원은 제왕의 유렵과 사병이 말타고 활쏘며 무예를 연마하는 곳이다. 이러한 수렵에 쓸 목적으로 들짐승을 기르는 금원 외에 일종의 가축을 길러서 사용하는 공마우원도 있었다. 공

마우원은 국가에서 마소를 기르는 곳이었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했었다(역리, 1996:103).

진 원유는 금수를 기른 곳이고 식물을 재배하는 일이 없었으니 원림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

진의 금원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역리, 1996:101-106).

1. 진 금원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長楊. 부양궁(黃陽宮) 옆의 원유와 같이 자연의 산림을 이용해 금수를 번식해 유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금원의 범위는 매우 크고, 형태상 엄격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조건으로는 주위에 담이나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한다. 둘째는 獸園. 兎園의 종류와 같이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원유이다. 그것은 작은 범위이고 반드시 담장과 울타리가 있다.

2. 진대 금원은 주로 수도인 咸陽의 서남쪽 渭水와 진령(秦嶺)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한의 상림원 범위로 되는 대체로 일치한다. 이 분포의 특징 때문에 후세에 상림원으로 그것을 통칭하였다. 실제로는 秦 渭水 남쪽 금원은 한 땅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 호(鄠)와 杜 兩縣이 분할해 몇 개의 구역을 이루었고 그 때문에 구성하는 원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 獸園, 長楊宮, 宜春苑, 上林苑의 4개 금원 구역이 있다. 상림원은 원래 함양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던 것으로 阿房宮으로 중심이 되는 원유이다. 그 명칭은 뒤에 변하여 진의 위수 남쪽 금원의 통칭이 되었다.

3. 금원의 주요 기능은 제왕에게 유렵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유 중에는 行宮을 지어서 황제의 거동에 편의를 준 것이 많았다. 이는 곧 진 금원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만드는데 바로 궁원의 결합이다. 상림원과 朝宮, 의춘원과 의춘궁과 長楊宮, 부양궁(黃陽宮) 옆의 금원도 궁전에 의지해 객관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秦始皇은 渭水의 남쪽 기슭에 방대한 규모의 원림인 上林苑과 離宮을 건설하였는데 그 유명한 阿房宮은 바로 上林苑에 건설되었다.<sup>19)</sup>

천하를 통일하고 도성을 건설한 진시황은, 長生不死와 영원한 제왕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方士(道士)들의 말에 따라, 자신을 위한 長生不死의 仙藥을 찾아올 것을 명령하였다. 진시황의 명령에 의하여 徐福은 500여명의 童男童女를 인솔하고 동해의 仙島에 가서

전설 속의 선약(仙藥)을 찾으러 떠났다. 그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상림원에 연못을 파고 연못 가운데 전설 속에 동해에 있다는 仙島를 상징하는 봉래(蓬萊)를 축조하여 인간세계의 仙境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것이 중국 원림 역사상 최초로 원림 중에 바다 신선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 된다. 진시황은 자신을 기리켜 천자라 하였으므로 천상의 배치를 인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 의도가 이와 같은 신선의 세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주유권, 1993:33).

### Ⅲ. 西漢<sup>20)</sup> 園林

上林苑은 西漢에서 가장 중요한 皇家園林의 하나이며 서울인 長安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배치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것의 확장과 쇠퇴는 서한 國勢의 盛衰와 하나 하나가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중요한 관심을 받아왔다.

상림원의 본래 뜻은 황가의 원유이다. 그것의 고유명은 秦代의 발전을 거친 후에 한 장안성 서남쪽에 위치하여 땅이 周至, 호(鄠), 杜에 걸쳐 있고 의춘, 건장, 長楊, 오작(五柞), 黃山 등의 宮觀<sup>21)</sup>을 포함하는 상림원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皇帝의 유렵 때 설 만한 원유와 궁관을 제공하는 關中지역 일체를 포함한 곳을 가리킨다. 서한 초에는 국가경제가 황폐화되어 궁관과 원유는 비교적 적었다(왕두교, 1995:223).

상림원에 포함되어 황제가 사용하는 궁관과 원유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少府의 관할이었다.<sup>22)</sup> 漢武帝에 이르러 국력이 점차 강대해져 사치하는 풍습이 날로 성행하였다. 황가의 遊樂에 제공되는 원유는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수량도 증가했다. 이 때 상림원의 대부분 사무는 水衡都尉의 주관으로 바뀌었다.<sup>23)</sup> 『漢書. 百官公卿表』의 기록에 의하면 수형도위는 한 무제 元鼎 2년 초에 설치했다. 수형도위의 직무는 상림원의 유관 사무를 오로지 주관하는 것 외에 겸하여 황실과 국가재정의 유관사무를 주관했던 것이다. 이 외에 상림원이 수형도위의 주관을 받았으나 아울러 궁관과 원유의 사무는 모두 옛 장관에게 있지 않았고 일부분의 사무만 계속해서 옛 소부가 책임졌다(왕두교, 1995:226).

서한 상림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주로 아래와 같은 네 관점이 있다. 첫째 관점은 다음과 같다.

漢의 상림원은 동으로는 패산(霸潏)에서 시작하고 남으로는 終南山 옆에 있으며 서로는 지금의 周至에 이르고 북으로는 渭水에 걸쳐 있었으니 지금의 興平 지경 내의 黃山宮을 포함한다. 이 첫째 관점은 비교적 보편적인 관점이다. 둘째 관점은 한 상림원은 위수 북쪽의 황산궁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지금의 淳化縣 일대의 甘泉宮을 포함했다고 여긴다. 셋째 관점은 한의 상림원은 기껏 위수 남쪽 부분을 포함했다고 여기고 위수 북쪽의 황산궁은 곧 위수 북쪽의 甘泉苑에 속한다고 여긴다. 넷째 관점은 西晉 반약(潘約)의 『關中記』에 보인다. 그 책에서 상림원은 위수 북쪽의 황산궁을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藍田縣의 鼎湖宮에 위치했고 지금 周至縣 경내의 長楊宮, 射熊觀이 위치했던 것까지도 그 안에 없었다고 하였다.<sup>24)</sup>

상림원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상림원의 확장 원인과 그 구조의 특징을 밝혀야 한다. 서한 초년에 사회경제가 황폐화되었는데 高祖로부터 景帝에 이르기까지 줄곧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는 정책을 취해 일찍이 秦의 원유와 園地를 개방해 백성들에게 경작하게 했다. 진 상림원 중의 長楊, 宜春 등과 같은 官觀은 비록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한나라 초의 여러 황제는 불시에 여기에 이르러 노닐었다. 상림원은 하나의 금지된 땅이 아니어서 그 속에서는 대량의 백성 가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良田이 있어서 보통 백성들은 자유로이 땅에 출입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것은 황제의 遊幸에는 불편을 주었고 황제의 안전에도 위험을 조성했다. 특히 建元 3년(기원전 138)에 漢武帝가 미복차림으로 놀러 갔을 때 약간의 사고를 냈다. 그 이전의 사고도 있어서 이에 太中大夫 毋丘壽王과 待詔(한림원에 속해 문서 대조를 관장하는 관리)에게 계획해 건설하도록 명하였다.<sup>25)</sup> 완성된 상림원은 왕가의 전용 사냥터가 되었고 그 속에는 많은 宮殿과 臺觀을 건설하고 국내외에서 이식되어 온 무수히 많은 기이한 꽃과 풀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진기한 새와 맹수를 풀어 길렀다. 이 마을에 기왕에 있었던 良田은 이미 훼손되어 버려졌고 거주민들은 이미 내쫓겼다. 다만 있는 것은 한없이 뻗은 산림 가운데에 얼마간의 화려한 樓臺 정각으로 장식한 거대한 동식물원 뿐이었다. 이곳은 보통 노 백성이 출입하는 것을 유히하지 않았고 그 주위는 높고 큰 담이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

라<sup>26)</sup>. 동시에 겨우 있는 12개 동산 문에는 출입을 금하는 병사를 파견하고 守衛를 나아가게 하였다.<sup>27)</sup>

한 무제 때에 상림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또 建章宮을 대규모로 닦아세우고 다시 여기에 더해 건장궁과 상림원을 인접시켰다. 그래서 어떤 史籍에는 이 두 원유 지역을 西郊苑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삼보황도』는 상림원 밖에 또 따로 서교원이 있어서, '숲과 못이 연이었고, 등근 담장으로 둘러진 것이 400여 리이고 아궁별 관이 300여 곳이었다.'<sup>28)</sup>고 하였다. 실제의 서교원은 곧 상림원이니 모두 구별하지 않고 한 동산으로 삼은 것이다.

상림원 안의 宮觀 數는 여러 사람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상림원 범위 내의 궁관은 60곳이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왕두교, 1995:233).

漢武帝는 太初 元年(104 B.C)에 상림원 내에 규모가 웅대한 궁전인 建章宮을 축조하였다. 건장궁 북쪽에는 太液池가 있었다. 이 테액지는 못 가운데에 蓬萊, 方丈, 영주(瀛洲)<sup>29)</sup>를 상징하는 海中島를 축조하였다.<sup>30)</sup> 호수 가운데에 섬을 축조하여 해상 神山를 상징하는 수법은 秦代에 이미 시작하였지만 완전한 형태의 三神山를 축조하고 명명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이후로 一池三山의 전통적 배치형식은 역대로 전해져 청대의 이화원(頤和園), 圓明園 등 황가원림 배치형식의 기본이 되었다(주유권, 1993:49-50).

한편 테액지 호반에는 돌로 조각한 길이 약 5m, 폭 1.3m 정도 크기의 물고기 장식품이 북쪽에 설치되었고, 남쪽에는 길이 1.6m 정도 되는 돌거북이 놓여 있었다.<sup>31)</sup> 평지를 굴착하여 인공의 못을 조성한 것과 병행하여 건장궁 내원에는 흙으로 산을 축조하였는데, 5km 거리에 9개의 인공산을 쌓고 기이한 수목을 식재하였다.<sup>32)</sup>

## IV. 隋, 唐 園林

### 1. 隋, 唐 園林

隋, 唐시기의 皇家園林은 진, 한 시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반적으로 원내의 건물이 웅장하고 신선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隋煬帝는 大業 元年(605) 洛陽城 西쪽에 유명한 황가원림인 西苑을 건설하였다. 서원

은 둘레가 100km나 되는 규모가 방대한 원림으로, 洛水를 끌어들이며 둘레가 5km되는 호수를 축조하였다. 호수 가운데는 높이 25m 정도의 蓬萊, 方丈, 瀛洲 3개 섬을 축조하고 섬 위에는 殿, 閣, 臺, 觀을 건조하였다.<sup>33)</sup>

唐都 長安의 城 중에서 外郭城은 당 장안의 제일 중요한 성이다. 또 외곽성은 성시의 백성이 거하고 주거하는 경제문화 생활의 주요활동구역이다. 이것은 京城 방어의 주요 屏障이 된다. 역대왕조는 외곽성의 건설을 가장 중시했고 당장안성 외곽성의 평면 形制는 동서는 길고 남북은 짧고 규칙적인 횡 장방형을 이룬다. 다음 夾城은 中唐 이후 외곽성벽의 동면과 북면에 郭牆을 평행하게 삼단으로 복벽을 각각 수리해 쌓았고 가운데에는 通道가 있다. 唐 玄宗 개원 14년(726)에 정치활동의 중심이 大明宮에서 점차 興慶宮으로 바뀌었다. 황제는 백성들이 자기의 행적을 보지 못하게 했고 東城 벽을 따라서 북단밖에 흥경궁에서 북쪽으로 대명궁을 통하는 협성을 만들었다. 당현종은 개원 20년(732) 潛行하여 曲江池 芙蓉園으로 가서 유락했고 東城 벽 남단밖에 흥경궁을 남쪽으로 통하는 협성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제2의 重城인 皇城이 있으며 『關中勝蹟圖志』에는 '경성의 양편에 있고 그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과 백관이 그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장안성 제3 重城인 宮城이 있다. 고대에 있어서 안은 성이 되고 밖은 郭이 되는데 성을 짓는 것은 황제를 위한 것이고 郭을 조성하는 것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건축규칙제도가 있고 장안의 궁성은 황제 거주를 제공하고 조정의 행정을 처리하며 전국 봉건 건축활동중심이다. 궁성의 안은 太極宮, 東宮, 掖庭宮의 3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태극궁은 궁성의 중부에 있고 동궁은 동쪽에 있고 액정궁은 서쪽에 있다. 동궁은 황태자가 거주하는 곳이고 액정궁은 궁녀가 거주하는 곳이다(주운암, 1997:95-96).

당장안성 중 3대 궁전구가 있는데 3大內라 칭하며 서내는 태극궁, 동내는 대명궁, 남내는 흥경궁이다. 3대내는 당내각 시기의 정치활동의 중심이고 그 건축은 장려하고 산수화목의 배치가 합당하여 3개의 특징이 같지 않은 원림 구역이다. 태극궁은 당수도의 정궁으로 西內라 하고 태극궁의 위치는 궁성의 중앙이고 남은 황성과 접하고 북은 서내원에 이르고 동은 동궁과 접하고

서쪽 경계는 액정궁이다. 태극궁의 건축 포국은 周代 '前朝後寢'의 원칙에 의하여 궁내를 2前朝와 內廷전후 2부분으로 나눈다. 태극궁은 唐都 장안에 있는 제일 큰 궁전 건축 군이고 殿, 閣, 亭, 觀 3,40 개소가 있고 이들이 순서대로 태극궁에 배열되어 있고 한 개의 방대한 건축 군을 이루고 山池水樹가 더해져서 궁내 원림 구역을 이루었다. 海池는 태극후궁 구역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지며 수역이 넓고 푸른 파도가 일렁거리는 고로 海池라 한다. 이는 태극궁 중 湖色山光을 위주로 한 풍경구이고 황제가 여기에서 뱃놀이를 했고 그외에 동해지, 북해지와 서해지가 있다(주운암, 1997:98-100).

대명궁은 唐太宗이 그 父 高祖 李淵을 위해서 수축한 淸畧 행궁이고 『관중승적도지』에 '...龍朔 2년 고종이 중풍에 걸려 태극궁은 비하했고 그래서 대명궁을 수리해서 봉래로 개명했고 殿 뒤 봉래지 이름을 얻었다.'라 하였다. 대명궁의 건축배치는 '前朝後寢'의 전통건축설계 사상을 채용한 궁내 건축이다. 태역지는 대명궁의 주요 원림 건축의 하나이고 대명궁 북면 중부에 있으며 龍首原 북쪽 언덕의 평지 쪽의 낮은 곳에 있고 憲宗 元和 12년(817) 5월에 또 중수했으며 못 주변에는 회랑이 백 칸이 있고 녹수가 넘치며 殿廊이 서로 연결되고 못 속에는 봉래산이 있고 湖光山色과 푸른 파도가 일렁거리고 궁중의 원림 풍경구가 되었다(주운암, 1997:101-103).

흥경궁은 황성의 동남에 있고 開元에 처음 설립했고 개원 14년부터 증수하고 넓혔고 南大라고 칭했다. 흥경궁의 건축배치는 당 3大內 중 비교적 특수한 곳이고 전통의 전조후침과 증축선 좌우대칭 건축배치와 같지 않고 건축배치는 불규칙상이고 후세 자유식 건축배치와 비슷하다. 흥경궁의 흥경지는 수면호색을 위주로 한 수경구역이다. 그 위에 항상 구름이 있기 때문에 황룡이 출현한다고 해서 龍池라 했다. 못 속에 연과 수초가 많고 호안 주위는 버들이 늘어서 있고 경색이 좋다. 唐王朝 황제는 항상 樓에 체색을 하고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뱃놀이를 하고 경치를 감상했다(주운암, 1997:125-126).

## 2. 長安의 池潭

당의 도읍 장안은 사람들이 그곳 주택의 크고 아름답음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거나 호화로운 궁전, 넓은 거리, 번영한 상업, 진기하고 화려한 문화는 모두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들이다. 그리고 장안성 안에 꾸며져 있는 많은 池潭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것이 장안성을 위해 빛을 더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지담에는 그 맑은 물의 잔물결, 둘러싼 대나무, 우거진 연꽃들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서 이로 인해 연못은 사람들의 감상의 대상이 되고, 배를 저으면서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 또 못 가운데의 살진 물고기와 선명한 연뿌리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이 많은 지담은 당대의 장안지역이 강우량이 많고, 땅에 흐르는 물이 많으며 기후가 습기 있는 곳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호수의 효과는 장안성의 소 기후와 미화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적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당 장안의 지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치: 장안 (규모 8,400ha)

2. 입지(경점군, 1994:87-97)

1) 왕궁: 龍池, 太液池, 西內西海池, 南海池, 北海池, 西內山池, 어저지(魚藻池), 九曲宮山池

2) 사대부가: 위응물지(韋應物池), 獨孤公轉池, 양림지(楊凭池), 楊師道山池, 許敬宗池, 元眞觀山池, 岐楊公主池, 李逢吉池, 배도지(裴度池), 왕흥지(王鉞池), 郭駙馬池, 왕흔지(王昕池), 경산현주산지(隴山縣主山池), 위지경덕지(尉遲敬德池), 馬鎮西池, 배손지(裴巽池), 太平公主池, 정회직지(程懷直池), 풍속산지(馮宿山池), 段成式山池, 요합지(姚合池)

3) 기타: 나머지

(지담 수 57개)

3. 공간 구성

1) 명칭: 태액지(봉래지)

2) 사상적 배경: 태액지( 연못 가운데 神仙思想을 나타내는 봉래산이 있어서 봉래지라고 일컫는다)

3) 상징적 의미: 봉래산, 봉래지

4. 경관 요소(경점군, 1994:87-97)

1) 식생: 대나무, 물 대나무, 서리맞은 대나무, 목작약, 능화(菱花), 소나무, 잣나무, 연꽃

2) 축산: 석: 산, 동산. 큰 돌이 우뚝우뚝, 돌을 쌓

아 산을 만들고, 臺 (곡강지, 부용지, 독고성전지, 영왕산지, 원진관산지)

3) 養禽獸: 진기한 짐승, 학, 거위와 오리, 온갖 새, 다양한 물고기

4) 정자: 대부분

5. 기능(경점군, 1994:87-97)

· 배를 모으고 재목을 쌓는 형: 광운담, 서시담

· 放生形: 초국사 방생지, 영승방 방생지, 동시방 방생지, 서시방상지, 대천복사방생지

· 놀며 감상하는 형: 나머지 50개 연못

6. 분포상 특징(사염해, 1996:96) : 대부분 도랑과 이어져 분포

7. 水源(사염해, 1996:96)

· 黃渠: 曲江池, 芙蓉池, 慈恩南池, 楚國寺放生池, 楊慎交山池, 韋應物池, 獨孤公轉池, 永穆公主池, 楊凭池, 楊師道山池, 永崇坊放生池

· 龍首渠: 東市放生池, 龍池, 許敬宗池, 寧王山池, 元眞觀山池, 岐楊公主池, 東宮山池, 西內山水池, 西內東海池, 龍首池, 太液池, 凝碧池

· 清明渠: 李逢吉池, 裴度池, 王鉞池, 尚舍局山池, 西內西海池, 南海池, 北海池, 西內山池, 安祿山池

· 永安渠: 郭駙馬池, 王昕池, 隴山縣主山池, 尉遲敬德池, 馬璘池, 馬鎮西池, 西市放生池, 萬花池, 瑤池

· 漕渠: 西市潭, 裴巽池, 延壽坊古池, 太平公主池, 大菴福寺放生池

· 산, 파(漚, 瀾): 廣運潭, 魚藻池, 九曲宮山池, 程懷直池, 華陽池, 소씨지(蕭氏池), 馮宿山池, 段成式山池, 姚合池, 放鴨池

3. 別業

王維의 輞川別業은 『全唐詩』 권 198에 잠삼(岑參)의 ‘終南雙峰草堂作’의 한 수에 잘 서술되어 있는데,

“자취를 감춰 산천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가라앉혀 시대를 사양하네,

낮에는 초당에 돌아와 누워, 다만 쌍봉 만을 대하네. 흥이 일어나면 즐거운 노닐을 멋대로 하고, 심사가 흡족하니 아름다운 경관에 부합하네.

높은 창 아래에서 글을 쓰고, 밤낮으로 성안을 보네. 접매 세상사람의 잘못 여김이 되어, 드디어 평생의

즐거움을 저 버렸도다.

오랫동안 수풀과 골을 멀리하다가, 자연에 오니 소나무, 삼나무가 크구나.

정려(精廬) 부근이어서, 자주 명승을 만났도다.

때론 나무하고 고기 잡으며 온종일 관과 띠를 하지 않았도다.

언덕입구에는 갓 돋은 달이 떠오르고, 석문엔 푸른 아지랑이가 깨치네.

색은 못 나무에서 깊고, 빛은 연못을 흔들며 부쉬지네.

정생이 살던 골짜기를 회고하고, 엄자룽이 낚시질하던 여울목을 생각하네.

뛰어난 일은 가히 좇을 수 있으나, 이 사람은 천 년에 아득하구나.”<sup>34)</sup>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終南別業은 柵川別業이고 이것은 장안의 祥谷의 이북이거나 혹은 지금 호현(鄆縣)의 草堂寺 동북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호, 1997:237-240).

李德裕의 平泉庄은 洛陽城의 남쪽으로 30여리 떨어진 곳에 있다(주유권, 1993:83). 그는 평천장 주위 십리에 백여 개의 臺와 榭를 만들었고, 평생에 걸쳐 각지의 진기한 나무와 꽃, 怪石을 원내에 균형있게 배치했다. 그가 평천장을 매우 애호했다는 사실이 ‘平川山居戒子孫記’에 전해지고 있다. “나의 평천장을 파는 자는 나의 자손이 아니다. 평천장의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는 좋은 자제가 아니다. 내가 죽은 지 백년 후에 권세 있는 이에게 빼앗기면, 선인의 명으로써 물면서 그것을 알려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sup>35)</sup>

白居易의 여산(廬山) 草堂園은 元和 연간(806-820)에 백거이가 江州의 司馬로 좌천되어 가서 여산에 초당을 修建하였다(주유권, 1993:84) 『草堂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 칸에 기둥이 두 개이고, 방이 두 개에 담벽이 네 개다...

나무는 쪼개기만 하였고, 丹砂는 칠하지 않았다. 담은 흙손으로만 칠하였고, 석회는 바르지 아니하였다. 계단은 돌을 이용하고, 창문 덮개는 종이를 이용하였으며, 대발장막은 보기 좋게 걸려 있다.”<sup>36)</sup>

이처럼 백거이의 초당의 규모는 작았지만 『閑居偶

吟』에 “대나무 숲에 거문고 하나와 연못위에 술 한 병만 있으면 된다.”<sup>37)</sup>라고 적으면서 옛날의 隱士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江湖를 그리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임상섭, 1998:67-68).

양사악(羊士諤)의 永寧里 정원은 양사악의 시에 다섯 수 소개되었고 이것은 『永寧小園卽事詩』, 영영리원 정휴목창연성영시(『永寧里園亭休沐愴然成咏詩』), 수려사문만하과영영리폐거임정건기시(『酬廬司門晚夏過永寧里敝居林亭見寄詩』), 『永寧里小園與沈校書接近愴然題寄詩』, 『小園春至偶呈吏部侍郎中』이다(이호, 1997:240-241) 여기서 『永寧小園與校書接近因寄』 한 시는 『全唐詩』권 271을 보면 원래 제목이 『永寧小園寄接近校書』로서 시에 이르기를, “고향을 마음으로 기약했으나 이별한 것은 무엇이고, 손수 심은 나무 중 마당의 오동이 생각나네. 동쪽 언덕의 기장이 익으면 그대는 응당 취하겠지요. 배 앞은 붉다가 흰 이슬이 많아졌네.”<sup>38)</sup>라고 하였다.

『전당시』544에는 劉得仁의 『初夏題段郎中修竹里南園』시가 있다. 단낭중은 오여욱과 호가선이 고증한 바에 의하면 段文昌으로 일찍이 樞密郎中이 되었다. 옛터는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 南郊 西影村에서 南池頭村까지에 있다(이호, 1997:241-242).

『전당시』 권321 權德輿 『奉和于司空二十五丈新卜城南郊居接司徒公別墅卽事書情奉獻兼呈李褒相公』시에 말하기를, “별장의 못은 맑고, 정교(晴郊)의 초목은 우거졌도다. 도랑과 발두둑은 두곡에 이어졌고, 띠풀 혹은 문에 가득하도다.”<sup>39)</sup>라고 하였는데, 우사공은 우적(于頔)이고, 사도공은 곧 杜佑이다. 두우의 별업은 장안성 남쪽 杜曲(지금의 섬서 장안현 위곡진 동남 15리에 처함)에 있다. 于賓客庄은 우사공이 교외에서 거처한 땅으로서 장안성 남쪽 두곡에 있는 땅이고, 安仁坊은 우적의 성안 본집이고 두곡의 거처는 성 바깥의 한거하는 곳이거나 별장이 되는 곳이다(이호, 1997:242).

『전당시』 권 225에 張設의 『季春下旬詔宴薛王山池序』가 있는데 말하기를, “푸른 물결에 별은 따뜻하고, 남산의 눈은 희끗희끗하다... 帝京의 좋은 경치 上林에 나아가 놀고, 戚里의 池臺, 修竹에 나아가 잔치한다.”<sup>40)</sup>라고 하였다. 『舊唐書』 권 106 『李林甫傳』에, “임보의 경성 집은 정원과 물방아가 값이 최상이다. 성 동쪽



에 薛王別墅가 있는데 숲과 정자가 그윽하고 깊으니 도읍에서 으뜸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하사하신 것이다.”<sup>41)</sup>라고 되어 있다. 薛王은 설왕을 이은 이견을 가리키는 것이고 설왕별서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 양인이다(이호, 1997:242-243).

郎士元の 吳村別業의 위치에 관해서는 『전당시』 권 239에 전기의 『題郎士元半日吳村別業兼呈李長官』이라는 시가 있고, 같은 책 권 248에는 낭사원의 『酬王季友題半日別業兼呈李明府』라는 시가 있다. 별업은 渭南(지금의 섬서에 속함)이고, 이 때 낭사원은 위남의 원님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이호, 1997:243).

宋徽求의 『長安志』 권 9에 “御史大夫 왕 흥(王鐸)의 집. 天寶년 중에 흥이 죄가 있어 죽었을 때, 현의 관청의 장부에 太平坊 집을 기록하는데 며칠이 지났으나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 집안에는 白雨亭이 있는데 처마 위에서는 나는 물이 네 군데서 흘러들어 한여름이었으나 서늘한 것이 한가를 같았다.”<sup>42)</sup> 라 하였다.

李格非의 『洛陽名園記』 ‘李氏仁豐園’ 조에 말하기를 “이위공에게는 『平泉花木記』가 있는데 백 여종이다. 지금 낙양의 좋은 기술자들이 분별해서 그 나무에 접근했는데 조화가 오묘함을 다룬다. 그래서 세세토록 더욱 기이함이 더해진다.”<sup>43)</sup>라 하였다. 여기 『평천화목기』에서 말한 것은 곧 이덕유의 『平泉山居草木記』의 한 문장이니 『전당문』 권 708에 보인다(이호, 1997:244).

『전당시』 권 120에 楊浚의 『題武陵草堂』이 있다. “초당은 신선 누각과 같이 있고, 위에는 청산의 머리가 있네. 집 밖으로 몇 봉우리가 보이고, 섬돌 앞에는 쌍우물이 마주했네. 비가 내려 꽃이 젖은 바닥에 떨어지고 바람이 소나무를 지나가니 비로소 서늘해지네... 다시 숲 사이에서 만나는 것 즐기니. 내가 장차 남영(南穎)에 누우려 하네.”<sup>44)</sup> 라고 무릉초당이 서술되어 있다.

『全唐文』 권 872에 李徵古의 『廬江宴集記』가 있다. “강남 산수는 천하에 다들 만한 데가 없다. 광려(廣廬)의 떨어지는 별은 강남에서 다들 만한 데가 없다. 기이한 봉우리와 빼어난 골, 하늘 끝 절벽에 그윽한 집, 보기에 간소하고 화려함을 다했으니 기록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림같이 단청의 묘를 다했으니 어찌 일찍이 그와 방불한 상태가 있었으리요? 건정 己

酉年에 내가 여행하다가 여기에 놀러와, 國朝의 四門博士 庭筠의 서당 옛터를 볼 수 있었으니 五乳의 봉우리를 등지고, 천앵(遷鶯)의 골을 두르고 있다. 폭포가 오른쪽에 있어 한 물결을 나누어 희게 달려 나가고, 팽려(彭蠡)가 앞에 있어 만 길을 응시하니 빈 곳을 품었다. 여기는 또 광려간에 다들 만한 데가 없다.”<sup>45)</sup> 이징고가 이러한 金印峰 초당을 경영한 때는 10국 중 뤼나라 대화 2년(경인년, 930)이었다(이호, 1997:244).

## V. 결론

중국의 고대 원림은 秦代에 성립되어 漢과 隋, 唐代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秦代에서 보인 제왕의 수렵장으로 이용되었던 원유가 차츰 각종 식물을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림으로 형성된 것이다. 漢의 上林苑에서는 이 원림에 못을 파고 못을 팔 때 나오는 흙으로 가산을 만들고 못 주위에 亭, 樓, 閣 등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못 속에는 섬을 만들며 신선사상에 의한 仙島 즉 蓬萊, 瀛洲, 方丈의 세 섬을 만드는 전통이 秦代부터 시작되어 漢代에 완성되어 ‘一池三山’의 원림 조성 수법 전통이 후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못은 규모 면에서 우리 나라와 달리 방대한 것이었으며 호수라고 불릴 수 있는 크기였다.

특히 못 속에 仙島를 만드는 수법은 우리 나라와 일본에도 전해져서 平安시대(정동오, 1990:88-89, 삼은, 1984:158-159) 전기부터 연못 축조의 전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호수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거대한 못은 원림의 중심을 이루고 여기에서 각종 遊宴이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연못은 조정공간의 중심이고 그 기능도 遊宴所의 역할을 했다.

隋, 唐代는 중국 원림의 전성기로서 宮苑, 別業, 池潭을 중심으로 한 원림 등 여러 원림들이 발달하게 된다.

秦, 漢代와 隋, 唐代 宮苑의 이러한 皇家園林의 전통은 私家園林에도 영향을 끼쳐왔으나 唐代에 들어와서 사가원림은 황가원림의 모방만이 아닌 독자적인 원림 형식을 갖게 된다. 그 하나가 別業으로 사대부들의 원림이다. 別業에 대한 연구는 문인들의 작품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앞으로 유적지를 발굴하여 이

와 관계시킨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別業 이외에도 황가원림과 사가원림에는 많은 池潭이 조성되어 원림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상의 중국 고대 원림의 연구를 통하여 중국 원림의 전통의 뿌리를 찾아서 그 양식과 정신의 연원을 다 소나마 밝히고, 중국 고대 원림이 한국과 일본의 苑에 끼친 영향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주1. 풀, 마당

주2. 여기서 고대란 秦. 漢시대부터 隋. 唐시대까지를 가리킨다.

주3. “秦人所建苑 可考者首數北園. 据詩經·秦風·鸛鳴 : ‘公之媚子, 從公于狩……游于北園. 田馬既閑’, 知北園爲秦公遊獵的場所.”(苴里, 1996.101)

주4. “强弩弋高鳥, 走犬逐狡兔. 此其爲樂也.”(淮南子. 原道)

주5. “(商紂王) 益廣沙丘苑臺. 多取野獸飛鳥置其中.”(史記. 殷本紀)

주6. “具園秦之 名即具園 按有垣曰苑無垣 足利本左傳 具園作具園”(中文大辭典)

주7. “原園 園名 在今河南省原武縣 「在氏僖三十三」鄭之有原園 猶秦之有具園”(中文大辭典)

주8. “鄭之有原園, 猶秦之有具園”(左傳 僖公13년)

주9. “秦大穢, 應侯請曰: ‘五苑之草著, 蔬菜橡果粟粟足以活民, 請發之.’”(韓非子. 外儲說右下)

주10. 집승우리

주11. “秦始皇統一全國後, 嘗議欲大苑囿, 東至函谷關, 西至雍·陳倉, 終因 仇加勸諫輟止”(史記. 潘穉列傳)

주12. “始皇三十五年, 乃營作朝宮渭南上林苑中.”(史記. 秦始皇本紀)

주13. “二世乃入上林齋戒”(史記. 李斯列傳)

주14. “漢上林苑即秦之舊苑也.”(三輔黃圖)

주15. “秦時有亭 蹕苑.”(秦會要訂補)

주16. “宜春宮, 本秦之亂宮, 在長安城東南杜縣東.”(三輔黃圖 卷3)

주17. “秦宜春宮在雍州萬年縣西南三十里, 宜春苑在宮之東, 杜之南.”(括地志)

주18. “趙高逼殺胡亥, 以黔首禮葬二世杜南宜春苑中.”(史記. 秦始皇本紀)

주19. “營作朝宮渭南上林苑中, 先作阿房前殿”(史記. 秦始皇本紀)

주20. 前漢

주21. 離宮, 別宮

주22. 漢書. 百官公卿表上

주23. 史記. 平淮書

주24. 宋敏求, 長安志 卷4, 宮室 二四. 漢中

주25. 漢書. 東方朔傳

주26. 後漢書. 班固列傳

주27. 漢書. 百官公卿表

주28. 陳直, 三輔黃圖校註

주29. 풀 王嘉가 지은 拾遺記에는 瀛洲. 蓬萊, 方丈의 신선의 세계가 나온다

주30. “其北治大池 漸臺高二十餘丈 名曰太液池 中有蓬萊方丈 瀛洲壺梁象海中神山 龜魚之屬”(史記 孝武記)

주31. “池北岸有石魚 長二丈 廣五尺 西岸有龜二枚”(張樹, 三輔故事)

주32. “秦土爲山 十里九坡 種奇樹”(漢官典職)

주33. “周二百里 其內爲海 周十餘里 爲蓬萊方丈瀛洲諸山 高出水百餘尺 臺觀殿閣 羅絡山上 向背如神北有龍鱗渠 紆注海內 繞渠作十六院 門皆臨渠 每院以四品夫人主之 堂殿樓觀 窮極華麗 宮樹秋冬彫落 則以綵爲花葉 綴於枝條 色別以新者 常如陽春”(資治通鑑 169 漢書, 1997: 92에서 재인용)

주34. “敘述韓山田. 息心謝時榮 畫蓮草堂臥 但見雙峰對 興來恣往游 事仗荷勝概 蒼書高窓下, 夕日見城內. 囊爲世人誤 違負平生愛, 久與林壑辭, 及來松杉大. 偶越精廬近, 數探名僧舍. 有時逐樵血, 盡日不冠帶. 屋口上新月, 石門破蒼苔. 色向群木深, 光搖一潭碎. 緬羨鄭生谷, 頗憶殿子瀨. 勝事猶可追. 斯人邈千載”(全唐詩 卷198).

주35. “吾平泉者, 非吾子孫也; 以平泉一樹一石與人者, 非佳子弟也. 吾百年後, 爲樵斃所奪, 則以先人之命, 泣而告之, 此吾志也”(王毅 1990: 233.)

주36. “三閨兩柱, 二室四墻 木, 研而已, 不加丹, 墻, 均而已, 不可白, 鹹階用石, 恆窗用紙, 竹簾, 率稱是焉”(白居易 草堂記)

주37. “竹間琴一張, 池上酒一壺”

주38. “故里心期奈別何, 手栽芳樹憶庭柯, 東臯黍熟君應醉, 梨葉初紅白鶯多”(全唐詩 卷 271)

주39. “別墅池塘處, 暗草木蒼苔, 向溪連杜曲, 茅土盛于門.”(全唐詩 卷321)

주40. “碧流日暖, 南山雪殘, 首戴歲之淡辰, 尾暮春之提日, 帝京形勝, 借上林而入遊, 戚里池臺, 親修竹而開宴”(全唐詩 卷225)

주41. “林甫京城邸第, 田園水榭, 利盡上畝, 城東有薛王別墅, 林亭幽遠, 甲于都邑, 特以賜之.”(舊唐書 卷106)

주42. “太平坊有御史大夫王 其 天寶中 竊有罪賜死, 官簿錄太平坊宅財物, 數日不能遍, 宅內有白雨亭, 楹上飛流四注如白雨, 當盛夏處之, 凜若高秋, 皆思挾纊”(宋敏求, 長安志 卷9)

주43. “李衡公有 「平泉花木記」, 百餘種耳. 今洛陽良工巧匠, 批剝紅白, 揆以亡木, 與造化爭妙, 故歲歲益奇且廣.”(李格非, 洛陽名園記)

주44. “草堂列仙樓, 上在青山頂, 戶外窺數峰, 階前對雙井, 雨來花霽濕, 風度松初冷. ……更愛雲林間, 吾將臥雨靚”(全唐詩 卷120)

주 15 “江南山水, 天下無與爭也. 匡廬落星, 江南無與爭也. 奇峰秀壑, 穹岸邃室, 簡素極辭華之瞻, 不能記其一二 圖

畫盡丹青之妙，何嘗狀其彷彿。乾貞己酉歲，予旅游及此，得國朝四門博士庭筠書堂故基，背五乳之峰，帶遷鶯之谷，瀑布在右，分一派以走白，彭蠡在前，擬萬頃以含虛，斯又匡廬間無與爭也”(全唐文 卷872)

### 인용문헌

1. 姜泰昊(1997) 中國古典園林의 發展過程, 韓國庭苑學會誌 15(2)· 85-99.
2. 耿占軍(1994) 唐都長安池沼考述, 中國歷史地理論叢 31: 87-99
3. 關中勝蹟圖志
4. 舊唐書
5. 史念海. 主編(1996)西安歷史地圖集, 西安· 西安地圖出版社.
6. 司馬光, 資治通鑑
7. 司馬遷, 史記
8. 三國史記
9. 三輔黃圖
10. 森籙(1984) 庭園, 近藤出版
11. 徐松 撰, 李健超 增訂(1996) 增訂 唐兩京城坊考, 西安· 三秦出版社
12. 宋敏求, 長安志
13. 新唐書
14. 億里(1996) 秦苑回難考, 中國歷史地理論叢 39: 101-106
15. 王嘉撰(1981) 拾遺記, 中華書局.
16. 王社教(1995) 西漢上林苑的範圍及相關問題, 中國歷史地理論叢 36: 223-233.
17. 王毅(1990) 園林與中國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8. 劉敦楨, 鄭沃根 外譯(1995) 中國古代建築史, 서울·世進社
19. 劉安, 淮南子
20. 李浩(1997) 唐代園林別業雜考, 中國歷史地理論叢 43: 237-244.
21. 임상섭(1998) 中國 隱逸文化와 士大夫園林의 關係,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張樹, 三輔故事
23. 全唐文
24. 全唐詩
25. 鄭喞軒(1990) 東洋造景文化史, 광주: 全南大學校 出版部.
26. 周云庵(1997) 陝西 園林史, 西安: 三秦出版社
27. 周維權(1993) 中國古典園林史,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8. 阮直, 三輔黃圖校
29. 漢官典職
30. 漢書
31. 後漢書